

2020수능 대비 지구과학1 수특 특이 사항 정리

1강. 행성으로서의 지구

11p 개념 check 4번: 지구 온난화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는 **기권**과 **생물권**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. →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이 대기에 관련한 것이니 **기권**으로 알아두자.

14p 2점 수능 테스트 9번의 ㄷ보기: 하천수에 의해 운반된 암석 조각이 빙하에 의해 운반된 암석 조각보다 모서리가 둥글다. →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고체로 밀어서 굴린 돌은 여기저기 부서지고 투박하게 깎이는데 액체로 밀어서 굴린 돌은 부드러운 액체로 밀었으니까 둥글게 깎일 것이다. 어색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알아두자.

14p 2점 수능 테스트 11번: 지구 내부 구조를 분리할 때 물리적 성질에 따른 기준(**암석권, 연약권, 맨틀, 외핵, 내핵**)으로 분리한 것과 구성 성분에 따른 기준(**지각, 맨틀, 핵**)으로 분리한 것을 비교하는 문제이다. 문제 소재 자체가 혼한 소재는 아니니 주의 깊게 봐두자. 특히 물리적 성질에 따른 기준이 구성 성분에 따른 기준보다 덜 익숙하니 잘 숙지해 두자.

15p 2점 수능 테스트 13번의 ㄱ보기: 석회 동굴의 형성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이다. → ‘석회 동굴은 지하수에 의해 석회암이 녹아서 생기는 건데 태양 에너지?’라는 의문과 어색함이 있을 수 있다. 그러나 지하수라는 게 육지에 내린 비가 근원이기에 크게 보면 물의 순환과 관련이 있어 태양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라 볼 수 있는데 음... 그냥 직관적으로 근원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대부분 높은 확률로 태양 에너지다. 지각에서 일어나면 지구 내부에너지, 밀물과 썰물 관련 있으면 조력 에너지인데 둘 다 아닌 거 같으면 대부분 태양 에너지로 생각하자. 지1이 원래 이런 좀 받아들이기 그런 부분이 있다. ㅠㅠ

15p 2점 수능 테스트 16번의 (가) 그림의 선상지: 선상지 잘 안 나오는 소재인데 모처럼 나왔으니 **지권과 수권의 상호작용**이라는 것과 **선상지 형성 과정** 정도는 알아두고 넘어가자.

19p 3점 수능 테스트 7번: 지구계 에너지원의 양은 태양 에너지 > 지구 내부 에너지 > 조력 에너지 →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보다 양 많다는 거 진짜 필자의 경우 수능 보는 날까지도 헛갈렸다. 잘 숙지해 두자.

20p 3점 수능 테스트 10번의 ㄷ보기: 황사를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다. → 석회 동굴 애기와 비슷한 맥락이다. 일단 황사라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저기압과 고기압이 필요하다. 저기압과 고기압은 기권과 관련이 있는 현상인데 기권과 관련된 현상은 태양 에너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므로 황사 역시 태양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. 원리는 이렇지만 그냥 황사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 일어난다고만 알아두자.

21p 3점 수능 테스트 11번: '현재로부터 약 10억 년 전'은 현재라고 표시된 곳에서 한 눈금 뒤로 가는 것이고 'S가 형성되고 20억 년 후'라는 것은 가로축 S의 나이에 S가 20억 살일 때의 눈금을 봐야 한다. 지1은 워딩을 정말 정말 주의하자. 이걸로 의문사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.

21p 3점 수능 테스트 12번의 ㄱ보기: 지구 형성 초기 대기에서 급격히 감소한 이산화 탄소는 대부분 지권에 저장되었다. → 이산화 탄소는 바다에 녹아 들었으니까 지권이 아니라 수권 아닌가요?라고 물을 수 있다.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바다에 녹고 수권으로 이동한 탄소가 석회암의 형태로 지권으로 저장되었으니 중간 과정을 스킵하고 처음과 끝만 보면 대기의 이산화 탄소가 지권으로 저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.

2강. 지구의 선물

27p 개념 check 3번: 토양의 산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산성비를 줄이기 위해 공장의 굴뚝에 탈황 장치와 같은 여과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. → **초지엽이긴 한데 보통 토양 산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화학 비료 사용 줄이고 자동차 배기가스만 생각해서 갑자기 이런 거 튀어나오면 당황할 수 있으니 토양 산성화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공장 굴뚝에 탈황 장치같은 여과 장치 설치하기가 있다는 것을 가볍게 알아두자.**

28p 개념 check 3번: 육지의 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**빙설**이다. → **담수에서 빙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모두가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육수에서도 빙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출현 빈도가 적은 내용이라서 어색해서 당황할 수 있다. 이 기회에 머릿속에 잘 숙지하고 넘어가자.**

34p 2점 수능 테스트 2번의 ◡ 보기: (나)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. → **수력 선지가 친절해서 그렇지 선지 중에 ㄱ, ◡, ㄷ 보기 있었으면 낚이기 매우 쉬운 보기이다. 기억해두자. 태양열을 이용할 때에는 태양열 발전인지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시설인지 잘 구분해두자! 무조건 전기 만드는 게 아니다!**

36p 2점 수능 테스트 11번의 ㄱ 보기: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테인(CH_4) 수화물이 주성분이다. → **수화물이라는 워딩에 당황할 수 있다. 수화물은 분자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물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의미한다. 이 보기를 통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테인 수화물이 주성분이다라는 표현을 알아두고 넘어가자.**

37p 3점 수능 테스트 2번의 ◡ 보기: **수력 발전과 조력 발전은 수압 차이, 풍력 발전은 기압 차이를 이용한다.** → **신선한 워딩이다. 수력 발전과 조력 발전 다 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하는 건데 높이가 높은 쪽이 수압이 더 세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 터빈이 돌아가므로 수압 차이를 이용해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. 풍력 발전의 경우 바람을 이용하는데 바람이 기압차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므로 기압 차이를 이용하여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. 생소한 워딩이니 머릿속에 잘 숙지해두자.**

42p 3점 수능 테스트 12번의 (나) 대보초 그림: **2019 수능 대비 수능특강에서도 있었던 그림이다. 대보초는 호주에 있으면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이고 관광 자원 중 하나라는 것만 가볍게 알아두자.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면 충분할 듯**

하다.

43p 3점 수능 테스트 14번의 ㄴ 보기: 성산 일출봉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해당한다. → 유네스코에만 집중해서 낚이지 말고 워딩을 하나하나 잘 보자!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이다!! 선지에 ㄱ, ㄴ, ㄷ 보기 있었으면 낚이는 사람들 꽤 있었을 것이다.